



쓸쓸한 노인들

정병모/(재)봉신장학회 감사

이 밖에 말뚝을 박아대던 손자에게 벌을 줘야 했던 할아버지는, 애비 없는 철부지를 데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묘소를 간다.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아버님, 불초 자식의 손자가 남의 재물(財物)에 손을 대었사오니 그 벌을 내려주소서' 하고는 바지가랑이를 걸어들린다. 곧이어 손자에게 회초리를 주면서 할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한다.

핏줄로 맺어진 가족들은 각각의 개체(個體)가 아니었다. 일체(一體)였던 것이다. 그 핏줄은 이미 죽고 없는 조상들과 미래에 태어날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개체의 아픔은 곧 일체의 아픔이며, 개체의 죄악은 일체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가족들의 중심에서 당당했던 노인들은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의 노인들은 삶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로부터도 소외 당하고 있다.

아무리 늙고 힘이 없더라도 가족들로부터 조건 없이 공경받던 노인들, 아무리 대단한 신지식인이라해도 가족들 사이에서는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 또 아무리 못배우고 가난하다해도 그것이 열등감일 수 없었으며, 더욱이 늙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본이었던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다.

서양은 가족 의식보다 개인 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 의식은 가족 의식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의식보다 더 흉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의 노인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전쟁 속에서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냈고, 젊은 시절에는 산업사회(産業社會)의 역군으로써 모든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와중에서 자녀를 양육했고,

부모를 부양하면서 가정을 지켜왔던 것이

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월 초 이튿날은 「노인의 날」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곧 노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노인들을 보살펴야 할 당사자는 여성

이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 및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가정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어렵고 힘든 전문직(專門職)에까지 당당하게 도전하고 있다.

의식의 변화가 더딜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은 '설마 우리 자식들에게까지야...' 하는 사이에 자신들도 이미 이런 현실에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쓸쓸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홀로 살 수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삶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인 것이다.

